

2012

April Vol.35

CONSULTING GUIDE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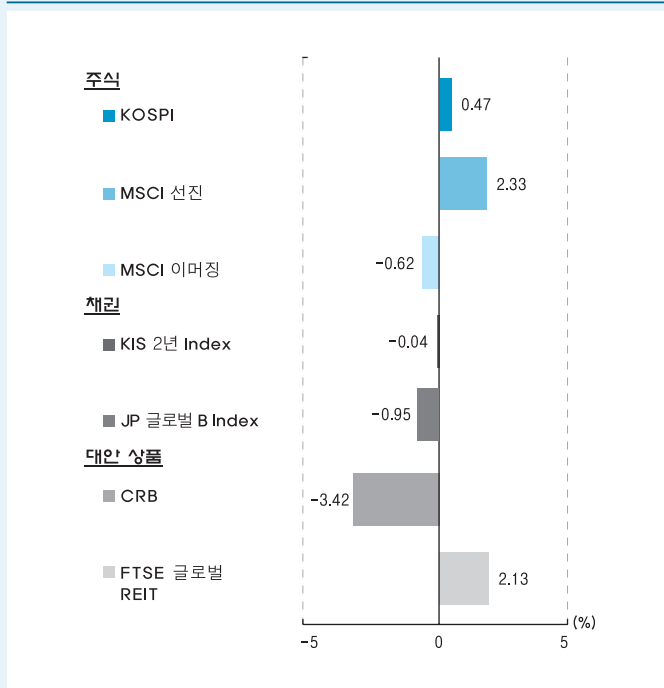
Contents

- 02 4월의 투자전략
- 04 4월 Fund Universe 요약
- 10 주요경제지표
- 11 주간수익률 추이
- 12 Wrap 상품 운용현황 및 계획
- 14 4월 공모 ELS 만기상환 일정/월간 마켓이슈
- 15 WM 추천상품
- 16 월간절세컨설팅
- 17 4월 리서치 업종별 Top Buy 종목
- 18 주요 상품 운용현황 및 전망
- 22 펀드 완전판매 모니터링 체크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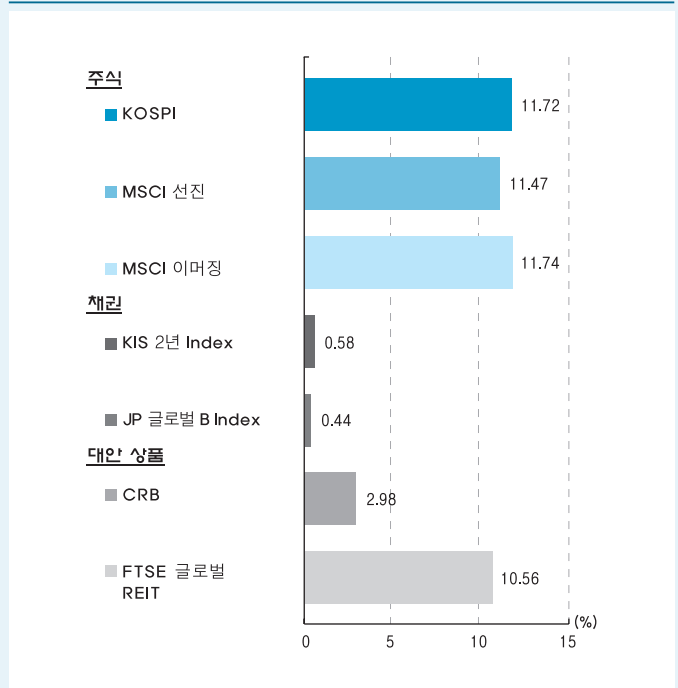
1. Investment Directions

자산별 인덱스 수익률

▶ Monthly_March 2012



▶ YTD_2012



국내주식 전망

	시장전망		선호 ◀ 중립 ▶ 선호	
시가총액	실적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업종별 차별화 예상	소형주	● ● ● ● ●	대형주
스타일배분	IT섹터의 이익개선 등을 고려한 섹터전략이 유효	가치주	● ● ● ● ●	성장주

해외주식 전망

	시장전망		선호 ◀ 중립 ▶ 선호	
지역별	기업실적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과 단기 급락한 중국 투자 유효	선진국	● ● ● ◎ ●	이머징
스타일배분	인덱스 추종보다는 정책수혜주 및 실적개선주에 집중	인덱스	● ● ● ● ●	섹터

채권시장 전망

	시장전망		선호 ◀ 중립 ▶ 선호	
듀레이션	미 국채금리 및 외국인 매매에 의해 박스권 움직임 예상	단기채	● ● ● ● ●	장기채
신용등급	전월에 이어 크레딧 채권에 대한 매수세 지속될 전망	우량채	● ● ● ● ●	투기채

원자재 및 통화시장 전망

	시장전망		선호 ◀ 중립 ▶ 선호	
원자재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감에 따라 박스권 움직임 예상	축소	● ● ● ◎ ●	확대
통화시장	美 추가 양적 완화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달리는 등락을 거듭할 전망	달러	● ● ● ● ●	기타

금월 ● 전월 ◎

2. Market Strategy

Monthly 자산배분 전략

- 글로벌 증시 상승을 견인하던 미국 경기개선 모멘텀이 둔화되는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 재부각, 중국 기업실적 악화 등의 이슈로 조정 장세 예상
- 미국 경기지표가 악화될 경우 오히려 QE3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악재가 부각될 때마다 분할매수 추천
-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업종(IT, 금융 등)에 선별적으로 투자하고, 금에 대한 투자도 여전히 유효

투자자산	투자전략	관심상품 및 종목
국내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멘텀 부족에 따라 3월까지 이어져 온 박스권 장세가 4월에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 • 다시 이슈화되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 및 유가 상승, 북한 이슈 등에 따라 단기적인 하락세가 예상되는 만큼 증시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 • 특히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는 IT, 산업재, 금융 섹터와 밸류에이션 매력에 있는 자동차가 강세를 보일 전망 	I'MYOU서바이벌 한국한국의 힘 동부파워초이스 한국밸류10년투자밸런스
해외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경우 가격 부담과 경제지표 개선 모멘텀 약화가 부담이나, 저금리 기조 유지 및 기업실적 개선 기대 등에 따른 미국 증시의 주요 매물대 돌파로 상대적 강세 구도 유지할 전망 • 유럽은 독일의 수출 등이 양호한 흐름이지만,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과도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 급락한 중국은 오히려 지금이 분할매수의 기회로 판단됨 • 따라서, G2(중국, 미국)에 대한 투자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럽 이슈 및 중국 정책 이슈로 하락 시 마다 분할매수의 관점으로 접근 	삼성CHINA2.0본토 피델리티미국 블랙록글로벌자산배분 미래아시아퍼시픽컨슈머
채권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채권금리는 미국 FOMC 이후 QE3 가능성 약화와 함께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로 큰 폭으로 상승 • 4월 국내 채권금리는 미 국채금리와 연동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상승 이슈와 하락 이슈에 따라 등락을 거듭할 전망 • 기준이 될 미국채 10년 금리의 경우 1.75%~2.75%의 큰 박스권 속에서 저점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 • 따라서 국채 금리 상승 시기에 스프레드 축소로 수익률 개선세를 보이는 하이일드 채권펀드로 투자 스펙트럼 확장 필요 	AB글로벌고수익 템플턴글로벌 ING이머징현지통화표시
대안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 및 금값은 3월 한달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급 이슈에 따라 등락을 거듭한 끝에 각각 4.4%, 3.5% 하락세를 보임 •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감에 따라 원자재 가격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자재 최대 수요국인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이 꾸준히 악재로 작용할 전망 • 유가는 지정학적 우려와 공급 혼란 등의 이슈 및 경기 둔화 우려로 박스권 속에서 조정세를 보일 전망 • 금값은 유럽 재정위기 재점화, 위험자산 약세,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 등의 이슈로 상승세가 예상됨에 따라 금 관련 펀드 투자가 유효할 전망 	미래맵소저스 Commodity JP모간천연자원증권 블랙록월드광업주증권

집합투자 증권유형	스타일	펀드명	펀드코드	투자 위험도	세전수익률					1개월 %순위	총설정액	당사 매각액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연초대비			
주식 파생형	인덱스	NHCA프리미어인덱스1A(주식-파생)	051303	고위험	1.0	11.5	17.1	-8.1	11.5	2	431	0
		한국U리버스인덱스A(주식-파생)	004255	고위험	0.5	-10.4	-15.6	0.4	-10.4	-	206	126
		동부해오름인덱스알파A(주식-파생)	058603	고위험	-0.1	11.9	18.0	-4.5	11.9	16	471	259
		교보파워인덱스파생1_A(주식-파생)	050722	고위험	-0.1	11.4	17.0	-4.4	11.4	25	1,878	92
		크루즈F2.8인덱스A(주식-파생)	004181	고위험	-0.3	12.3	16.8	-4.9	12.3	54	342	342
		한국U인덱스전환1A(주식-파생)	004254	고위험	-0.5	11.7	17.0	-4.1	11.7	89	535	314
주식형	일 반	당신올위한국리아대표1A(주식)	040753	고위험	2.7	6.6	7.0	2.7	6.6	2	7,771	163
		삼성그룹리딩플러스증권1A(주식)	040167	고위험	0.1	9.7	14.5	-5.6	9.7	-	532	10
		PCA코리아리더스증권P-1(주식)	041048	고위험	-0.2	3.2	6.2	-3.6	3.2	21	1,682	288
		한국마이스터증권1A(주식)	006149	고위험	-0.9	9.5	15.9	-1.8	9.5	45	645	413
		JP모간코리아트러스트증권A(주식)	041436	고위험	-1.1	11.9	11.1	-12.4	11.9	52	13,779	583
		마이트리플스타증권A(주식)	040962	고위험	-1.3	5.9	9.6	2.0	5.9	61	865	3
		알리안츠기업가치창기증권A(주식)	040814	고위험	-1.4	6.6	5.5	-11.7	6.6	62	8,549	196
		한국네비게이터증권1A(주식)	004813	고위험	-1.4	10.8	16.7	-2.7	10.8	63	12,260	2,969
		삼성마이베스트증권1A(주식)	040772	고위험	-1.5	9.4	11.6	-10.6	9.4	66	1,651	4
		LS장수기업포커스증권1A(주식)	041801	고위험	-1.5	12.0	15.5	-7.4	12.0	66	140	4
		한국위험증권1A(주식)	040001	고위험	-1.9	12.7	19.1	-5.2	12.7	79	8,933	2,032
		한국팩스파인더증권(주식)	004779	고위험	-2.0	12.5	18.7	-5.9	12.5	81	1,278	275
		GS골드스코프증권1_A(주식)	041611	고위험	-2.3	8.1	10.3	-10.2	8.1	86	353	171
		트러스트칭기스칸증권A(주식)	041651	고위험	-2.3	9.8	12.8	-8.4	9.8	87	3,903	129
		교보교역증권자1A(주식)	041926	고위험	-3.8	4.1	0.9	-16.0	4.1	97	190	5
		동부파워초이스증권1_A(주식)	041247	고위험	-4.5	11.1	17.0	13.0	11.1	99	336	157
	가 치	신한BNP TopsValue증권1A(주식)	041551	고위험	0.2	10.1	11.1	-5.5	10.1	12	3,447	61
		한국밸류10년투자증권(주식)	040601	고위험	-1.6	3.6	15.2	2.4	3.6	67	7,506	6,576
		KB밸류포커스증권자A(주식)	041530	고위험	-1.6	9.1	17.0	7.0	9.1	70	1,268	136
	배 당	마이다스블루칩배당증권(주식)	008309	고위험	0.9	8.3	9.9	-11.0	8.3	-	264	26
		신영밸류고배당증권A(주식)	041186	고위험	-1.6	8.2	15.6	-1.2	8.2	63	623	9
		세이코배당증권(주식)	008351	고위험	-2.1	5.2	7.6	-7.8	5.2	84	351	60
	어린이	신한엄마사랑어린이적립식1C1(주식)	041008	고위험	-0.7	7.5	10.2	-8.8	7.5	38	169	0
		한국밸류10년어린이증권1A(주식)	040611	고위험	-0.8	10.8	23.1	-	10.8	42	24	24
	중소형	알리안츠Best중소형증권A2(주식)	040819	고위험	-0.9	4.9	4.9	-6.3	4.9	17	1,446	25
		유리스몰뷰티증권A(주식)	040842	고위험	-3.2	6.9	12.6	-1.5	6.9	62	308	22
		동양중소형고배당증권(주식)	040727	고위험	-4.2	5.1	7.9	-3.7	5.1	-	1,791	28
	테 마	한국삼성그룹증권1A(주식)	040123	고위험	1.2	12.6	18.1	-3.0	12.6	-	605	605
		한국현대차그룹리딩플러스1A(주식)	040120	고위험	-0.6	11.0	15.3	0.1	11.0	-	225	64
		하나UBSIT코리아증권1A(주식)	041683	고위험	-0.8	11.4	22.9	-4.9	11.4	-	628	11
		한국녹색성장증권1A(주식)	040106	고위험	-6.9	3.2	7.8	-2.3	3.2	-	13	13
	자산배분	한국셀렉트자산배분증권1A(주식)	040102	고위험	-1.5	12.4	19.5	-3.3	12.4	79	6	6
혼 합 주 식 형	시스템	동부머스트헤브월지급식증권1A(주혼)	030798	고위험	-1.0	1.7	0.9	-6.4	1.7	95	18	13
		라이프플랜월지급식자1C(주혼)	030010	고위험	-1.2	6.1	8.7	1.2	6.1	72	46	46
	헤지형	한국셀렉트리턴증권1A(주혼)	030013	고위험	-0.4	-	-0.7	-	-	60	4	4

설정일	운용사	총보수		펀드특징	환매수수료 (이익금 기준)
		선취	보수율		
2007.04.05	NHCA자산운용	1.00	1.000	펀더멘탈 인덱싱, 차익거래전략 등 시장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초과성과 추구	없음
2003.07.15	한국투자신탁운용	1.00	1.060	KOSPI200지수선물(매도포지션) 투자비용의 일정수준 유지	없음
2007.01.12	동부자산운용	0.03	0.165	KOSPI200 수익률을 추종하는 상품 중 가장 저평가된 자산을 보유하는 전략	없음
2006.03.14	교보약사자산운용	1.00	0.760	KOSPI200 수익률을 추종하는 인덱스 파생상품, 차익거래전략	없음
2002.01.29	한국투자신탁운용	0.80	0.124	KOSPI200 수익률을 추종하는 인덱스 운용, 차익거래전략을 병행	없음
2003.07.15	한국투자신탁운용	1.00	1.060	15시까지 종목전환 또는 환매청구시 익일 전환 및 환매가능(단, 국제선물인덱스의 경우 국제선물시장 종료 3분전까지) 종목전환 시 횡수에 제한 없고 전환수수료 없음	없음
2007.01.02	삼성자산운용	1.00	1.690	15대 대표그룹, 금융그룹, 공기업그룹, 미래 도약 기업군의 안정성장+성장성에 투자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50%
2006.10.13	한국투자신탁운용	1.00	1.655	삼성그룹주와 여타 주식의 투자를 5:5로 투자	90일 미만 70%
2006.05.25	PCA자산운용	1.00	1.700	업종일등 기업에 투자(30개 내외의 종목으로 압축 투자) 이익 창출 및 선호도가 높은 기업가치를 가진 기업에 집중 투자	없음
1999.06.23	한국투자신탁운용	1.00	1.519	자체 모델포트폴리오 중심 투자	없음
2007.06.27	JP모건자산운용	1.00	1.795	집중적인 포트폴리오 구성(30개 내외) 및 Best 투자 아이디어에 집중적 자산 배분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30%
2006.01.17	마이다스자산운용	0.50	1.750	다양한 수익원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균형 유지, 업종 대표주에 기반한 중소형주 전략	없음
2006.08.18	알리안츠자산운용	1.00	1.985	적극적인 경영개선 투자전략을 통하여 자본이득 추구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30%
2005.12.20	한국투자신탁운용	1.00	1.750	매출, 순이익 증가를 상위 종목 중심 투자, 철저한 Bottom-up 접근방식	없음
2007.01.02	삼성자산운용	1.00	1.690	철저한 리서치에 바탕을 둔 투자, 장기적 관점에서 핵심종목군 Buy&Hold 전략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50%
2008.10.01	LS자산운용	1.00	1.460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 30년 이상의 장수기업 중 30개 내외 종목에의 집중 투자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30%
2006.03.24	한국투자신탁운용	1.00	1.819	글로벌 경쟁력있는 국내 대표기업에 투자	없음
2006.01.16	한국투자신탁운용	1.00	1.694	성장+가치의 혼합형 포트폴리오, 자체 리서치 중심 운용	없음
2008.09.10	GS자산운용	1.00	1.500	Leading Company(대형 우량주), 시장의 Key Driver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30%
2008.06.27	트러스트자산운용	1.00	1.697	Growth+Value 동시에 추구, 고성장 산업군내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 선정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30%
2010.11.15	교보약사자산운용	1.00	1.350	정성적 Bottom-up 리서치 프로세스를 기반, 계량적인 접근법을 접목시킨 Q2전략 이용	90일 미만 70%
2010.09.15	동부자산운용	1.00	1.643	동부운용 섹터 애널리스트 Top pick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편입종목 균등배분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30%
2005.04.19	신한BNPP자산운용	1.00	1.500	기업의 가치를 순의, 자산, 배당 3가지로 분류하여 기존 가치주개념보다 폭넓은 투자	90일 미만 70%
2006.04.18	한국밸류자산운용	0.00	2.324	저평가 가치주에 투자	3년(2년, 1년) 미만 30%(50%, 70%)
2009.11.09	KB자산운용	1.00	1.410	기업가치가 본질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하는 가치투자	90일 미만 70%
2003.05.15	마이다스자산운용	1.00	1.210	블루칩 중 고배당주에 주로 투자하여 블루칩과 고배당주의 이점을 함께 추구	없음
2007.04.13	신영자산운용	1.00	1.180	고배당 주식 위주로 60% 이상 유지, 배당수익률이 평균 이상인 종목에 투자	90일 미만 70%
2002.03.11	SEI에셋자산운용	1.00	1.756	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가 우수한 주식에 투자	없음
2005.05.03	신한BNPP자산운용	0.00	2.220	저평가 주식에 장기 투자, 자금 적립으로 어린이 교육을 위한 재원 마련 부가서비스: 어린이용 펀드운용보고서, 경제교육 프로그램, 어린이 전용 사이트 운영	90일 미만 70%
2011.05.19	한국밸류자산운용	1.00	1.048	저PER전략 등 가치투자 철학을 기반함, 미성년자(만 20세 미만) 가입 가능	90일(1년, 10년) 미만 70%(30%, 1%)
2001.05.02	알리안츠자산운용	1.00	1.495	우량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 장기간에 걸쳐 검증된 우월한 투자전략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30%
2004.08.16	유리자산운용	1.00	1.557	우량 중소형 주식에 주로 투자해 시장 대비 초과수익 및 장기적인 자본이득 추구	90일 미만 30%
2005.03.08	동양자산운용	0.00	1.492	저평가주, 고배당주, Turnaround주에 투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추구	90일 미만 70%
2004.07.06	한국투자신탁운용	1.00	1.080	업종별 선두업체로 구성된 삼성그룹에 집중 투자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30%
2008.09.17	한국투자신탁운용	1.00	1.728	한국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군 '현대차그룹+리딩기업그룹'에 투자 현대차그룹과 리딩기업그룹의 비율을 35:55의 비율로 투자(10% 내외 전략종목 투자)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30%
2007.05.03	하나UBS자산운용	1.00	1.540	IT 관련 기업의 주식에 선별 투자하여 중장기적으로 자본이익을 추구	90일 미만 70%
2009.06.05	한국투자신탁운용	1.00	1.397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녹색성장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30%
2009.05.26	한국투자신탁운용	1.00	1.397	전통적인 Bottom-up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Risk-Return Profile 적용 →유연한 자산배분 전략 수행, 선물 등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비중 조정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30%
2010.01.21	동부자산운용	1.00	0.943	저가매수 고가매도 반복 실행을 통한 매매이익 누적으로 BM 대비 초과수익 추구	90일 미만 70%
2010.08.30	한국투자신탁운용	0.00	1.494	주가하락시 분할 매수, 상승시 분할 매도하여 매매이익을 누적시키는 연속분할매매 방식	90일(180일, 1년) 미만 70%(50%, 30%)
2011.05.31	한국투자신탁운용	1.00	1.094	시장 방향에 관계없이 절대수익 추구, 전략의 분산으로 수익률의 변동성 축소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30%

4월 Fund Universe 요약 _ 국내펀드 Universe

기준일 : 2012.04.02, 단위 : 억원, %

집합투자 증권유형	스타일	펀드명	펀드코드	투자 위험도	세전수익률					1개월 %순위	총설정액	당사 매각액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연초대비			
혼 합 채권형	일 반	당신을위한코리아대표30(채혼)1A	021915	중위험	0.9	2.3	3.1	2.9	2.3	1	407	23
		한국U증권전환형1A(채혼)	004905	저위험	0.3	0.7	1.4	2.8	0.7	-	137	82
		한국네비게이터증권1(채혼)	004811	중위험	-0.3	3.6	6.1	2.4	3.6	57	183	149
		교보완전소중한증권K-1(채혼)	028771	중위험	-0.4	2.9	2.6	-2.3	2.9	62	238	107
		미래디스커버리한아름(채혼)	008245	중위험	-0.5	2.2	3.4	-3.0	2.2	68	473	48
	가치	한국밸류10년투자증권1(채혼)	020751	중위험	-	2.6	7.2	5.4	2.6	33	456	243
		아이채권플러스알파1증권(채혼)	028712	중위험	0.2	1.6	2.9	3.7	1.6	40	247	219
	공모주	동양월지급국공채공모주1_C(채혼)	021818	중위험	-0.5	1.1	1.3	3.2	1.1	94	16	16
		동양월지급식물소재작1A(채혼)	021823	중위험	-1.1	-2.9	-2.0	-	-2.9	94	12	12
	섹 터	한국삼성그룹증권1A(채혼)	020102	중위험	0.5	4.1	6.4	1.7	4.1	5	381	70
채권형	회사채	한국장기회사채형증권1C(채권)	010101	저위험	0.3	1.1	2.3	4.1	1.1	4	618	456
		동양HighPlus증권1호(채권)	010632	저위험	0.3	1.2	2.7	5.0	1.2	16	778	32
		교보Tomorrow장기우량K1C1(채권)	010634	저위험	-	0.4	2.0	4.6	0.4	50	96	7
	테 마	PCA를가따라잡자자A_1(채권)A	012111	저위험	-0.3	1.7	-0.9	2.3	1.7	94	176	4
		한국마스터증기증권1A(국공채)	001778	초저위험	0.1	0.6	2.0	4.3	0.6	62	351	300
	국공채											

세제펀드 Universe

집합투자 증권유형	투자지역	펀드명	펀드코드	투자 위험도	세전수익률					1개월 %순위	총설정액	당사 매각액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연초대비			
주식형	브릭스	골드플랜브릭스연금자1(주식)	040075	고위험	-6.6	11.0	8.8	-18.4	11.0	92	12	11
	이머징	골드플랜글로벌이머징연금1(주식)	040077	고위험	-4.0	10.4	9.3	-12.2	10.4	44	4	3
	중국	골드플랜차이나연금자1(주식)	040072	고위험	-7.2	8.4	13.2	-18.7	8.4	78	41	37
	한국	한국장기주택마련증권1C(주식)	040018	고위험	-1.0	9.0	14.8	-3.0	9.0	47	1,338	231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증권1(주식)	040602	고위험	-1.6	5.0	11.5	-1.5	5.0	70	2,879	2,673
		골드플랜네비게이터연금1(주식)	040060	고위험	-1.7	11.0	17.5	-1.7	11.0	70	624	551
		골드플랜연금증권전환1(주식)	004121	고위험	-1.9	9.6	10.2	-13.0	9.6	78	3,736	2,989
		밸류10년장기주택마련증권1_A(주식)	040603	고위험	-2.2	6.6	15.1	5.5	6.6	83	89	89
혼 합 주식형	브릭스	신중개인연금브릭스전환1(주혼)	040092	고위험	-6.8	10.2	8.7	-16.7	10.2	94	3	3
	한 국	신중개인연금50증권전환1(주혼)	004115	고위험	-0.4	4.8	8.0	0.3	4.8	47	893	852
		신중개인연금95전환1(주혼)	040091	고위험	-0.8	8.9	14.6	-1.8	8.9	44	162	160
		골드플랜연금증권전환1(주혼)	004120	고위험	-1.1	5.8	6.8	-6.4	5.8	92	479	378
혼 합 채 권 파 생 형	한 국	장기주택마련인덱스35(채혼-파생)	004782	중위험	-0.2	4.1	6.2	0.4	4.1	53	149	149
혼 합 채 권 형	한 국	장기주택마련정통저편입1(채혼)	004238	중위험	-0.3	3.4	5.7	1.0	3.4	56	295	292
채권형	한 국	한국장기주택마련증권1(채권)	002475	중위험	0.1	0.7	1.8	3.4	0.7	71	67	64
		골드플랜연금증권전환1(국공채)	003555	초저위험	0.0	0.5	1.7	3.6	0.5	85	85	73
		골드플랜연금증권전환1(채권)	003556	중위험	0.0	0.6	2.0	4.0	0.6	85	290	249
		신중개인연금증권전환1호(채권)	003553	중위험	0.0	0.5	1.8	3.6	0.5	91	141	137

설정일	운용사	총보수		펀드특징	환매수수료 (이익금 기준)
		선취	보수율		
2007.01.10	삼성자산운용	0.80	1.140	국내 대표그룹에 속하는 기업 주식에 30% 이내 집중투자해 수익 추구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50%
2004.07.02	한국투자신탁운용	1.00	0.560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전환형	없음
2005.12.20	한국투자신탁운용	0.20	1.494	저평가된 성장주에 투자하여 장기 고수익 추구	없음
2007.04.06	교보자산운용	0.00	1.350	주식에 30% 이하, 공모주 투자, 안정적 수익률 관리 및 추가수익 달성을 목적으로 함	90일 미만 70%, 180일 미만 30%
2002.05.03	미래에셋자산운용	0.50	1.420	경기과 기업을 내재가치분석을 통하여 투자대상 종목을 선정	없음
2006.04.18	한국밸류자산운용	0.00	1.534	저평가 가치주에 투자	90일 미만 70%, 1년 미만 30%
2007.01.17	아이투자신탁운용	0.00	1.250	채권과 공모주투자 운용, 공모주 외에 제한된 주식의 액티브 운용	90일 미만 70%
2010.08.30	동양자산운용	0.00	1.342	초과수익이 가능한 주식 포트폴리오 매수 및 시장위험 헷지 등 시장 중립 포트폴리오 전략	90일 미만 70%
2011.07.26	동양자산운용	0.50	0.950	국공채 및 우량등급 회사채 등에 70% 이하 투자, 퀀트시장중립형 전략(15% 수준), Earning Momentum 전략(15% 수준), Equity Long-Short 거래(20% 수준)로 안정적 수익 추구	90일 미만 70%
2006.02.21	한국투자신탁운용	0.50	1.000	업종별 선두업체로 구성된 삼성그룹에 집중 투자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30%
2008.11.03	한국투자신탁운용	0.00	0.411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주로 투자하여 자본이익을 추구	90일 미만 70%
2006.05.11	동양자산운용	0.00	0.600	BBB- 등급 이상의 채권이나 A3- 등급 이상의 CP에 투자하며 타겟 듀레이션은 0.7~1.3년 내외 저평가 Credit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고, 듀레이션 조정에 의한 수익률 향상을 목표	90일 미만 90%
2006.09.05	교보자산운용	0.00	0.420	투자자산 대부분 신용리스크가 없는 국공채에 주로 투자 장기 목표 듀레이션을 일정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30%
2008.07.29	PCA자산운용	0.50	0.583	물가연동국채에 자산의 20~100%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의 실질 가치 하락방지 추구	90일 미만 70%
2003.05.07	한국투자신탁운용	0.00	0.700	자산의 안정성을 중시하여 국공채에 투자	90일 미만 70%

설정일	운용사	총보수		펀드특징	환매수수료 (이익금 기준)
		선취	보수율		
2008.05.27	한국투자신탁운용	0.00	2.313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및 홍콩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	없음
2008.05.27	한국투자신탁운용	0.00	2.313	러시아, 브라질, 아세안 가입국 중 6개국 및 아프리카 지역, 중국, 홍콩, 대만, 한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	없음
2008.05.27	한국투자신탁운용	0.00	2.313	중국 및 홍콩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	없음
2007.05.15	한국투자신탁운용	0.00	2.169	시장테마주, 주도주, 업종 순환매에 따른 전략종목 투자로 초과수익을 추구	90일 미만 70%
2007.03.19	한국밸류자산운용	0.00	2.324	60% 이상 주식에 장기투자하며 저평가된 가치주에 집중 투자	없음
2008.03.12	한국투자신탁운용	0.00	2.173	성장성을 감안한 저평가 종목 발굴	없음
2001.01.31	한국투자신탁운용	0.00	1.641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주식에 투자, 장기투자 관점의 종목 선별	없음
2008.05.16	한국밸류자산운용	1.00	1.469	가치투자펀드, Bottom-up, 저PER, 저PBR, 고배당주에 투자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30%
2008.09.17	한국투자신탁운용	0.00	2.284	업종대표주, 가치주 및 채권 등에 투자	없음
2000.12.30	한국투자신탁운용	0.00	1.900	주식 50% 이하, 업종대표주,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	없음
2008.09.08	한국투자신탁운용	0.00	2.082	업종 대표주 및 가치주에 주로 투자	없음
2001.01.31	한국투자신탁운용	0.00	1.341	주식 60% 이하,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주식에 투자	없음
2005.03.10	한국투자신탁운용	0.00	1.219	투자신탁재산의 35% 이내에서 인덱스 방식으로 운용	90일 미만 70%
2003.01.09	한국투자신탁운용	0.00	1.610	가치투자 실천, 단기 모멘텀 투자 지양	90일 미만 70%
2003.01.09	한국투자신탁운용	0.00	1.060	국공채를 비롯한 채권에 투자	90일 미만 70%
2001.01.31	한국투자신탁운용	0.00	1.050	국공채, 우량채권 등에 투자	없음
2001.01.31	한국투자신탁운용	0.00	1.050	우량채권 등에 투자	없음
2000.12.30	한국투자신탁운용	0.00	1.250	우량기업이 발행한 채권(BBB- 등급 이상)에 투자	없음

4월 Fund Universe 요약 _ 해외펀드 Unive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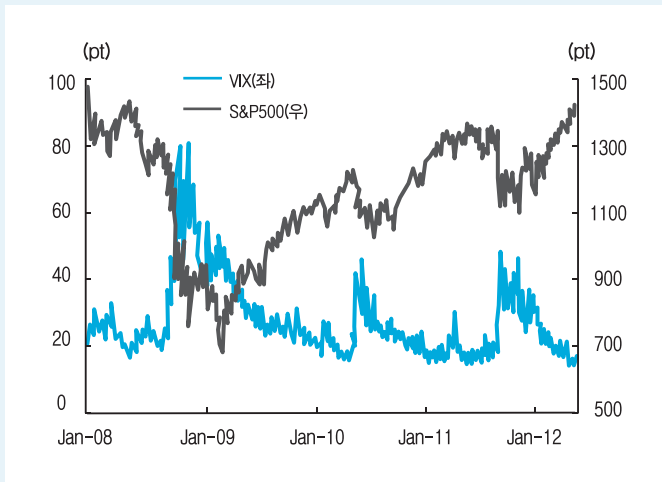
기준일 : 2012.04.02, 단위 : 억원, %

투자지역	집합투자 증권유형	펀드명	펀드코드	투자 위험도	세전수익률					1개월 %순위	총설정액	당사 매각액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연초대비			
글로벌	재간접형	AB글로벌고수익증권(채권-재)A	070832	고위험	0.4	6.7	11.0	5.4	6.7	32	3,958	25
		알리안츠PIMCO토탈리턴A(채-재)H	070931	저위험	0.2	3.5	4.8	5.7	3.5	-	152	6
		한국글로벌오퍼튜니티A(주혼-재)	070033	고위험	-0.5	2.3	0.7	-6.2	2.3	-	210	145
		블랙록G자산배분H(주혼-재)A	070861	고위험	-0.7	8.0	9.4	-0.4	8.0	-	132	0
	주식형	한국월스트리트증권A(주식)	040025	고위험	6.7	22.5	23.0	-11.0	22.5	1	510	101
		한국력서리증권A(주식)	040004	고위험	2.9	17.5	21.2	16.3	17.5	1	69	12
		도이치프리에미에그리증권(주식)	041125	고위험	1.2	12.1	12.7	-7.1	12.1	21	232	18
		블랙록월드에너지증권A(주식)H	041713	고위험	-6.3	2.0	13.2	-14.3	2.0	58	453	3
		JP모간천연자원증권A(주식)	041440	고위험	-8.7	5.8	5.4	-24.7	5.8	11	2,384	45
		블랙록월드광업증권A(주식)H	041715	고위험	-10.5	5.2	7.0	-23.0	5.2	38	3,074	22
		IBK골드마이너증권A(주식)	040784	고위험	-12.4	-1.7	-6.9	-16.5	-1.7	70	66	7
	채권파생형	산은에그리인덱스증권A(채권-파생)	050605	초고위험	-4.0	-1.1	-4.4	-13.1	-1.1	26	397	23
	채권형	미래글로벌다이나믹자A(채권)	011525	중위험	0.4	3.3	5.9	6.1	3.3	12	450	11
		템플턴글로벌증권A(채권)	011462	중위험	-0.8	4.1	5.7	4.4	4.1	80	2,069	134
	특별자산 파생	맵스Commodity인덱스특자B(파생)	051114	초고위험	-3.6	5.1	6.4	-10.1	5.1	10	703	32
		삼성WTI원유특자A(WTI원유-파생)	051251	초고위험	-3.8	2.6	23.1	-8.5	2.6	13	86	5
	혼합주식형	미래인사이트증권A(주혼)	040704	고위험	2.9	12.0	12.0	-5.3	12.0	5	15,453	341
미국	주식형	피델리티미국증권A(주식)	041367	고위험	0.1	10.6	23.2	1.2	10.6	90	220	15
베트남	혼합주식형	한국베트남적립식증권(주혼)	070012	고위험	5.4	21.3	3.8	-0.9	21.3	38	2,630	2,611
브라질	주식형	JP모간브라질증권A(주식)	041441	고위험	-3.9	14.8	18.4	-2.6	14.8	7	577	7
브릭스	주식형	슈로더브릭스증권A(주식)	041091	고위험	-5.3	11.0	12.7	-13.8	11.0	65	14,611	255
		NHCA 리브증권A(주식)	041491	고위험	-5.9	14.7	15.0	-15.8	14.7	80	106	14
아시아	부동산	골드만아시아리츠부동산A(재간접)	070632	초고위험	-0.2	14.0	11.6	-2.6	14.0	67	648	51
		IBK아시아태평양부동산A(리츠-재)	070691	고위험	-4.5	9.3	14.0	-1.5	9.3	-	46	1
	주식형	미래아시아퍼시픽퀀텀A(주식)	040692	고위험	3.9	10.6	8.5	4.7	10.6	10	1,170	51
		한국인니말레이증권A(주식)	040053	고위험	3.0	4.6	7.5	4.4	4.6	8	35	18
		피델리티아시아증권A(주식)	041346	고위험	0.4	12.5	15.5	-5.3	12.5	19	1,556	1
		하이Asia Infra증권A(주식)	041303	고위험	-2.9	6.9	11.0	-10.2	6.9	69	1,065	10
유럽	주식형	신한봉주르동유럽증권A(주식)	040995	고위험	-4.3	16.3	13.0	-21.8	16.3	69	1,613	65
이머징	주식형	JP모간중동&아프리카증권A(주식)	041431	고위험	0.4	10.5	11.1	1.2	10.5	9	365	12
		JP모간러시아증권A(주식)	041434	고위험	-3.1	22.5	19.3	-23.8	22.5	23	5,465	66
		신한봉주르중남미증권A(주식)	040993	고위험	-3.7	12.9	19.2	-10.0	12.9	59	2,118	145
		봉주르그레이트이머징증권A(주식)	041000	고위험	-3.9	13.4	16.3	-12.9	13.4	42	1,615	1,244
인도	주식형	미래인디아솔로문증권A(주식)	040695	고위험	-5.9	14.5	-3.4	-17.2	14.5	67	1,424	42
		피델리티인디아증권A(주식)	041343	고위험	-6.3	13.2	-5.0	-20.3	13.2	74	923	11
일본	주식형	템플턴재팬증권A(주식)	040934	고위험	3.6	16.6	12.5	1.9	16.6	21	1,170	68
중국	주식형	동부차이나증권A(주식)	041241	고위험	-5.6	8.3	14.1	-28.3	8.3	40	895	107
		한국네비게이터중국본토H(주식)	040139	고위험	-6.3	-3.6	-10.5	-26.6	-3.6	60	1,312	1,138
		피델리티차이나증권A(주식)	041341	고위험	-6.6	7.2	11.6	-18.0	7.2	66	8,384	55
		봉주르차이나오퍼튜니티재(주식)A1	041017	고위험	-7.8	9.5	15.8	-24.8	9.5	80	1,892	11

설정일	운용사	총보수		펀드특징	환매수수료 (이익금 기준)
		선취	보수율		
2009.06.30	얼라이언스벤처스	0.75	0.668	글로벌 고수익 채권에 분산투자로 총수익 극대화 뿐만 아니라 높은 이자수익 추구	30일 미만 10%
2010.06.22	알리안츠자산운용	0.70	0.845	PIMCO(알리안츠의 자회사)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 선제적인 리스크 통제(듀레이션 관리, 변동성 관리, 수익률 곡선 관리, 국가/섹터/신용등급)	30일 미만 10%
2011.03.21	한국투자신탁운용	0.50	1.268	헤지펀드 전략을 구사하는 다양한 뮤추얼펀드를 편입하여 절대수익 추구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30%
2009.08.25	블랙록자산운용	1.00	1.375	글로벌분산 및 자산배분 투자목표 달성 시장전망에 따라 주식, 채권의 편입비율을 조절하는 탄력적 운용 방식을 채택	30일 미만 10%
2007.06.19	한국투자신탁운용	1.00	1.430	전세계 M&A, 주식 및 채권발행 등 Investment Banking 사업을 영위하는 IB에 투자	없음
2006.12.15	한국투자신탁운용	1.00	1.864	세계적 명품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에 선별하여 투자	30일 미만 10%
2007.04.05	도이치자산운용	1.00	1.898	전세계 농/수/축산 산업 관련 주식(Agribusiness)에 주로 투자 (토지, 종자, 비료, 농기계, 금융, 유통, 가공, 기타 서비스 등)	90일 미만 70%
2008.09.18	블랙록자산운용	1.00	1.990	전세계 에너지 탐사, 개발, 생산 및 유통 등 에너지 관련 주식에 60% 이상 투자	30일 미만 10%
2008.02.21	JP모건자산운용	1.00	1.808	천연자원을 탐사, 개발, 가공, 생산하는 외국기업이나 천연자원 또는 천연자원 가공물을 판매하는 외국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	30일 미만 10%
2008.09.18	블랙록자산운용	1.00	1.990	산업광물(철광석, 구리, 알루미늄, 니켈, 아연 등) 및 귀금속 관련 기업 주식에 분산 투자	30일 미만 10%
2007.04.13	IBK자산운용	1.00	2.090	전세계 금광업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30%
2008.02.21	산은자산운용	1.20	0.900	농산물과 관련된 RICI Enhanced Agriculture Excess Return Index에 연계된 장외파생상품과 국내채권 및 유동자산	90일 미만 70%
2009.06.30	미래에셋자산운용	0.30	0.660	전세계의 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이자수입 및 자본이득을 추구	없음
2006.10.20	프랭클린템플턴투신	0.50	0.970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해외채권 및 채무증서 등에 투자	없음
2006.08.16	미래에셋자산운용	0.80	1.350	RICI Excess Return 지수수익률을 추적, 미국, 영국, 일본 등지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	없음
2009.02.20	삼성자산운용	1.00	0.860	WTI 원유관련 실물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	30일 미만 10%
2007.10.31	미래에셋자산운용	1.00	2.490	국가별/자산별 제한 없이 예상수익률에 따라 스윙 투자하는 펀드	90일 미만 70%, 180일 미만 30%
2007.05.17	피델리티자산운용	1.20	1.868	미국 주식에 분산 투자, 100~130개 종목 보유, 가치주 및 성장주 분산 투자	30일 미만 10%
2006.11.21	한국투자신탁운용	0.00	2.299	베트남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	3년(2년, 1년) 미만 30%(50%, 70%)
2008.03.03	JP모건자산운용	1.20	1.935	브라질 경제와 관련된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	30일 미만 10%
2006.02.13	슈로더투신운용	1.00	2.070	브릭스 4개국 분산 투자를 통한 개별국가 투자 대비 높은 분산투자 효과	90일 미만 30%
2008.02.11	NHCA자산운용	1.00	1.827	원자재가격 최대수혜국가인 러시아, 브라질 등에 분산투자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30%
2006.05.15	골드만삭스자산운용	1.00	1.100	아시아의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리츠 및 부동산개발회사 주식에 투자	없음
2006.02.13	IBK자산운용	1.00	2.060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 인도 등 아시아(일본 제외) 및 호주에 있는 리츠 및 부동산관련 주식에 투자	없음
2006.06.01	미래에셋자산운용	1.00	1.850	아시아퍼시픽 13개국 소비자 기업에 투자	없음
2008.01.07	한국투자신탁운용	1.00	1.878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주식 등에 중장기적으로 투자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30%
2007.05.17	피델리티자산운용	1.20	1.868	한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주식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장기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30일 미만 10%
2007.02.26	하이자산운용	1.00	1.985	아시아(호주 포함)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관련한 기업의 주식에 선별 투자 세계적 운용회사인 인베스코 홍콩에 위탁 운용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30%
2007.03.13	신한BNPP자산운용	1.00	1.960	중앙유럽, 동유럽, 터키 및 러시아 등 유럽 신흥국가의 주식 등에 투자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30%
2007.07.10	JP모건자산운용	1.20	1.980	중동 및 아프리카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 이득 추구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30%
2007.09.17	JP모건자산운용	1.00	1.793	러시아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일부 동유럽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30%
2007.04.03	신한BNPP자산운용	1.00	1.960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주요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여 자본이득 추구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30%
2007.11.28	신한BNPP자산운용	1.00	2.060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한국관련 주식 등에 주로 투자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30%
2006.01.09	미래에셋자산운용	1.00	1.850	인도시장에 상장된 인도주식, 미국 또는 영국에 상장된 DR 등 인도지역에 분사를 둔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60% 이상 투자	없음
2007.05.31	피델리티자산운용	1.20	1.868	인도에 상장된 인도기업주식 및 인도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는 해외기업들의 주식에 투자	30일 미만 10%
2006.05.09	프랭클린템플턴투신	1.00	1.870	현지에 기반을 둔 일본 시장 경험이 많은 포트폴리오 운용팀에서 운용	없음
2006.05.08	동부자산운용	1.00	1.730	홍콩 및 본토에 상장된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에셋플러스 투자자문)	90일 미만 70%
2010.02.05	한국투자신탁운용	1.00	1.848	글로벌 성장을 주도하는 중국, 비약적 성장이 예상되는 본토 증시에 투자	90일 미만 70%, 180일 미만 30%
2007.05.17	피델리티자산운용	1.20	1.868	중국과 홍콩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 Bottom-up 방식 및 top-down 방식을 활용한 운용 전략 구사	30일 미만 10%
2009.10.21	신한BNPP자산운용	1.00	1.910	가치 투자(상대가치, 절대가치)를 통한 꾸준한 성과 추구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30%

글로벌 변동성 지표

▶ VIX지표 (S&P의 변동성)



▶ VKOSPI (KOSPI의 변동성)



주: 변동성지표가 높아질수록 Risk 증가
자료: Bloomberg

※ VIX지표란? S&P500지수 옵션의 변동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통상 VIX가 상승하면 증시가 불안해지면서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명 공포지수라고도 불린다.

주요국 경제 및 증시 이슈

국 가	주 요 이 슈 (Up)	주 요 이 슈 (Down)	매 력 도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 소비자물가 전년 동월비 2.6%로 예상 하회 2월 산업생산 전월비 0.8% 증가해 2개월 연속 개선 국가 신용등급 전망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 수출 전년 동월비 1.4% 감소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불안감 지속 유럽 재정위기 재부각에 따른 외국인 매매 동향 	(=)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 ISM제조업지수는 53.4로 전월 대비 상승 3월 미국 자동차 판매 호조 지속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4년래 최저치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 FOMC 회의록 통해 QE3 가능성 약화 시사 2월 내구재 주문 2.2% 증가에 그쳐 예상치 하회 1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2003년 이후 최저 	(=)
유 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제금융기금 규모 확대 예정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 1%로 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 유로존 PMI는 47.7로 예상치 크게 하회 스페인 국채 입찰 목표치 하회 및 금리 상승 스페인 구제금융 가능성 증대 	(-)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월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3.5% 증가해 예상치 상회 적자를 예상했던 2월 무역수지가 329억엔 흑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월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1.2% 하락 최대교역국 중국으로의 수출이 14% 감소 	(-)
중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 제조업PMI 53.1로 시장 전망치 상회 QFII 증액 호재 및 사회보장기금 주식투자 확대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실적 악화 우려 지속 정부는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표명 대규모 공모 계획 및 장외거래시장 활성화 계획으로 수급 불확실성 존재 	(+)
이머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라질: 3월 소비자 신뢰지수 상승 러시아: 4분기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인도: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라질: 글로벌 경기둔화로 국제 상품가격 하락 러시아: 루블화 가치 하락 인도: 조세회피 신규 규제안으로 외국인투자 유출 우려 	(=)

주간수익률 추이

지역별/섹터별 주간수익률(Weekly) 추이

지역별	3/26 ~3/30	3/19 ~3/23	3/12 ~3/16	3/5 ~3/9	2/27 ~3/2	2/20 ~2/24	2/13 ~2/17	2/6 ~2/10	1/30 ~2/3	1/23 ~1/27	1/16 ~1/20	1/9 ~1/13
글로벌 (MSCI World)	0.24	-1.10	1.99	-0.69	0.02	0.91	1.52	-0.36	2.34	1.01	3.08	1.04
이머징 (MSCI EM)	-0.05	-2.01	0.31	-1.85	1.16	0.48	1.95	-0.59	3.12	2.16	4.42	2.79
유럽 (EURO ST50)	-1.91	-3.18	3.67	-1.19	0.89	0.13	1.59	-1.37	3.22	0.40	3.80	1.71
한국 (KOSPI)	-0.63	-0.37	0.80	-0.80	0.73	-0.18	1.49	1.08	0.38	0.77	3.96	1.77
미국 (DOW JONES)	0.81	-0.50	2.43	0.09	0.28	0.33	1.38	-0.17	2.17	0.07	2.04	0.88
러시아 (RTS)	-1.84	-4.57	4.24	-2.87	0.27	3.95	3.33	-1.37	3.82	4.64	3.45	1.60
브라질 (BOVESPA)	-1.98	-2.76	1.47	-1.59	2.79	-0.39	3.45	-1.87	3.68	0.95	5.35	0.93
인도 (SENSEX 30)	0.24	-0.60	-0.21	-0.76	-1.60	-2.00	3.05	0.82	2.15	2.96	3.62	1.81
일본 (NIKKEI225)	0.72	-1.17	2.02	1.56	1.34	2.80	4.88	1.30	-0.11	0.85	3.13	1.31
중국 (상해종합)	-3.69	-2.30	-1.42	-0.86	0.86	3.50	0.22	0.93	0.49	0.00	3.32	3.75
홍콩H (HSCEI)	-0.17	-4.98	-0.35	-4.11	0.42	-0.19	2.69	-1.73	1.39	2.69	4.79	6.51
베트남 (호치민)	-2.88	3.55	1.48	-1.70	3.82	4.99	-0.42	0.82	7.71	0.00	5.27	5.2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종합)	1.93	0.32	0.93	-0.33	2.83	-2.06	1.64	-2.58	0.74	0.00	1.30	1.70
말레이시아 (KLCI)	0.66	0.92	-0.48	-0.30	1.60	0.10	-0.29	1.49	1.17	-0.12	-0.03	0.59
남아공 (JSE)	-0.05	-1.90	0.87	-0.76	-0.22	0.52	0.56	-1.44	1.45	0.57	2.36	0.54

섹터별	3/26 ~3/30	3/19 ~3/23	3/12 ~3/16	3/5 ~3/9	2/27 ~3/2	2/20 ~2/24	2/13 ~2/17	2/6 ~2/10	1/30 ~2/3	1/23 ~1/27	1/16 ~1/20	1/9 ~1/13
원자재 (로저스 종합)	-1.17	-1.29	0.55	-0.72	-0.94	3.27	1.37	-0.34	-0.08	2.74	1.18	-0.96
에너지 (MSCI에너지)	-1.09	-2.69	0.89	-1.29	-1.40	2.30	1.87	-0.06	1.77	0.64	2.55	-1.63
WTI (NYMEX 최근월물)	-3.60	-0.66	-0.27	0.65	-2.73	5.88	4.45	0.93	-1.59	1.29	-0.39	-2.83
금 (COMEX 최근월물)	0.42	0.41	-3.28	0.10	-3.74	2.92	0.03	-0.85	0.26	4.11	2.02	0.88
농산물 (로저스 농산물)	0.02	-1.18	1.29	-2.08	1.09	0.32	1.05	-1.87	0.50	1.65	1.29	-0.52
소비재 (MSCI 소비재)	0.79	-0.36	1.96	0.46	0.46	0.56	2.10	0.29	2.44	1.14	3.23	1.34
금융 (MSCI 금융)	-0.57	-1.31	4.71	-1.17	0.72	0.36	1.79	-0.81	3.37	1.22	4.86	2.72
소재 (MSCI 소재)	0.10	-2.04	1.07	-2.28	-1.47	2.52	0.14	-2.40	2.13	2.83	3.12	3.38
글로벌리츠 (NAREIT 글로벌)	0.44	-1.92	1.30	0.63	-0.10	-0.21	1.47	-0.31	0.77	1.56	2.43	2.67
일본리츠 (TSREIT)	3.48	-3.77	2.52	1.74	1.87	4.99	4.29	-0.50	2.46	-0.15	0.87	-1.74
글로벌채 (JPM 채권)	0.24	0.66	-0.85	-0.51	-0.28	0.53	-0.46	-0.15	0.23	1.23	0.30	0.58

최상위

최하위

Wrap 상품별 수익률 현황

(2012년 3월 30일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상품명	설정액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KOSPI			-0.80	10.31	13.81	-4.40
펀드형 (아임유)	아임유 공격형	258	-1.06	8.14	10.83	-6.23
	아임유 적극형	1,106	-0.69	6.26	8.39	-3.76
	아임유 중립형	544	-0.37	4.03	5.73	-0.48
	아임유 안정형	715	-0.15	2.43	3.72	0.78
	아임유 서바이벌	366	-0.99	6.87	7.55	
	아임유 서바이벌2호	599	-1.49	6.07	8.56	
	아임유 서바이벌3호	160	-0.88	6.57		
주식형 (자문)	어드바이스랩(브레인)	190	-1.13	10.89	12.21	-9.42
	한국투자KT랩1호	5	-0.19	9.49	4.22	-7.85
	한국투자LS랩1호	10	-2.71	10.50	6.08	-18.54
	한국투자레이크랩1호	36	-1.83	11.08	1.34	-19.90
	한국투자코스모랩1호	242	-3.84	9.67	8.41	-16.07
	한국투자HR랩2호	89	-1.92	6.69	2.28	-24.72
	한국투자유리치랩1호	32	-1.51	8.77	16.18	-15.63
	한국투자템피스랩1호	219	-0.59	5.00	2.74	-12.29
	한국투자트러스트랩1호	19	-1.30	9.87	8.05	-16.34
	한국투자세이에셋랩1호	65	0.79	8.33	10.89	13.05
	한국투자이룸랩1호	2	-2.75	13.66	10.72	-0.84
	한국투자슈프림랩1호	8	-1.42	7.38	3.61	-19.48
	한국투자오크우드랩1호	139	-3.10	6.76	3.24	-19.70
	한국투자J&J랩1호	74	-2.50	8.91	9.50	-18.70
	한국투자창의랩1호	712	-1.20	4.25	3.02	-16.91
	한국투자한투운용랩1호	42	-5.04	15.92	12.05	6.34
	한국투자퀵드랩1호	36	-5.88	4.65	4.26	-9.97
	한국투자레오랩1호	76	-2.86	10.00	6.29	-17.17
	한국투자아인에셋랩1호	10	-4.23	2.22	-6.06	-21.88
	한국투자프렌드랩1호	60	-3.06	7.31	7.48	-7.14
	한국투자AK랩1호	19	-3.05	3.56	7.03	-8.83
주식형 (중앙)	알짜액티브랩	90	-2.91	4.86	8.64	-19.73
	알짜해피텐랩	32	-2.89	4.67	8.12	-20.00
	한국투자G3랩	11	0.37	10.36	12.88	-8.19
	한국투자중소형주랩	11	-4.76	0.49	16.89	-0.52
	한국투자고배당주랩	37	-1.34	-2.29	1.10	6.85
	한국투자TwoStar랩	289	-3.93	4.42	6.00	-15.50
	한국투자삼성그룹+5랩	9	1.47	11.99	15.42	-0.20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구 분		시장전망 및 운용 계획
이임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초 시장상승을 이끌었던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경제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1분기 어닝시즌이 도래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펀더멘털에 집중되고 있음. 중국, 유럽 경기부진에 따른 글로벌 수요감소와 유가급등에 따른 비용상승으로 1분기 기업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기업이익 예상치가 점차 개선되고 있고 OECD 경기선행지수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분기 이후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유럽경기는 여전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경기와 2분기 이후 경기개선이 기대되는 중국경기는 향후 시장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게 하는 요소임 - 실적이 양호한 업종중심의 차별화된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여 2분기 이후 실적개선세가 예상되는 종목 중심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단기적으로 추가상승보다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기간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
자문랩	브레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 주식시장은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혼재되며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됨. 글로벌 경기는 미국 제조업지표 둔화, 소비자 심리 위축 등이 나타나는 가운데 시장 기대와 달리 중국정부가 경기 부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일시적 둔화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상품가격 하향안정으로 인플레이 압력이 낮아짐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완화된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하반기 미국·중국 등 주요국 경기 부양정책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경기개선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당분간 주식시장이 추세 없는 횡보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1분기 어닝시즌을 앞두고 기업실적 방향성에 따라 주가 차별화가 나타나는 실적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업황개선 등으로 인해 견조한 실적흐름이 예상되는 IT, 자동차업종 및 해외주주 지속으로 이익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업종에 대한 시장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창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 KOSPI 지수는 1,950~2,250P수준을 전망함. 1,2월 지수상승 이후 3월과 4월 중순까지는 상승피로도가 주식시장에 반영되었지만, 또 한차례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이 2분기 중반이후부터 여름까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초장기 초저금리 상황은 여전히, 장기 성장성이 있는 경제의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한차례 지수밸리를 부추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함. 미국의 경제성장동력이 지표상으로는 주춤해지겠지만, IT서비스와 제조업, 바닥을 친 금융과 건설 등의 힘으로 미국증시의 움직임은 여전히 양호할 것임 - 2분기부터는 중국의 긴축관련 우려감도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분기말부터는 중국관련 소비주의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1차적인 지수밸리 이후 1분기 실적발표와 2분기 이후의 가이드스를 통해서 추가상승여력이 다시금 테스트를 받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음에 주목
	한국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 KOSPI 예상 밴드는 1,950~2,250P로 전망. 고유가에 따른 미국지표 개선 속도둔화, 중국 긴축완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3월 시장은 조정양상을 보임. 그러나 이러한 우려감은 최근 주가조정에서 많은 부분 반영되었다고 판단됨. 유가 또한 미국/사우디 등의 공조로 안정화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또한 미국/유럽 안정화로 수출 중심의 제조업경기가 바닥을 확인하고 회복하고 있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불확실성 완화에 따라 특정 업종/종목의 독주는 약화될 것으로 생각되며, 상승 업종/종목들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함. 특히 3월 중국 PMI지표 개선에서 신규주문, 재고, 가동률 지표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어, 시장의 우려와 달리 중국 경기동향은 양호한 자생적 개선을 보임에 따라 중국관련 업종의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4월 ELS 만기상환 일정

종목명	발행잔고 (백만)	발행일	만기	기초자산 (1)	기초자산 (2)	KI 베리어 터치 여부	확정지급률
부자아빠(ELS)1009	1,338	2010.04.09	2012.04.09	한국전력	우리금융	터치(2011/08/11)	62.37%
부자아빠(ELS)1759	1,270	2011.04.11	2012.04.10	KOSPI200	HSCEI		
부자아빠(ELS)1780	1,450	2011.04.15	2012.04.18	KOSPI200	HSCEI		
부자아빠(ELS)1795	353	2011.04.22	2012.04.25	KOSPI200			

월간 마켓이슈

밸류운용, 차기 대표펀드 '10년투자 밸런스펀드' 출시(이데일리 2012.03.27)

10년투자주식 펀드로 장기가치투자 철학을 고집해온 한국밸류자산운용(이하 밸류운용)이 전통적 가치투자보다 좀 더 시장 친화적인 방식의 운용을 하겠다고 나섰다.

기존의 전통적 개념의 가치투자 철학이 다소 시장과 괴리가 있다는 비판과 불만을 감안, 좀 더 시장 친화적이고 대중적 개념의 가치투자 방식을 내놓은 것이다.

27일 밸류운용은 10년투자주식 펀드를 이을 차기 대표펀드인 10년투자 밸런스(Valance)펀드 출시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치투자 원칙의 대중화를 꾀하기 위한 제 2의 가치투자 펀드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좀 더 진화되고 시장친화적인 제2의 가치투자방법을 찾아보자는 목적으로 이번 밸런스펀드를 출시하기로 했다"며 "기존 펀드가 금리대비 알파 수익을 추구했다면 이번 밸런스펀드는 코스피를 벤치마크로해 추가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신규펀드인 밸런스펀드는 가치(Value)와 균형(Balance)을 모두 갖춘 가치투자를 표방한다는 의미로 밸런스(Valance)라는 새로운 용어로 이름을 지었다. 기존 대표펀드인 10년투자펀드가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 상황 하에서 유리한 펀드라면 밸런스펀드는 지속적 성장을 하는 경제 상황 하에서 더 유리한 펀드인 셈이다.

이 펀드는 연간 1400회 이상의 기업탐방과 리서치를 통해 업종내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 투자한다. 또 업종별 경기 민감도와 수출·내수 비중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시장의 변동성까지 반영한다는 전략이다. 2012년 3월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시뮬레이션한 결과 코스피 수익률 37.9%를 27.9%포인트 초과한 65.7% 성과를 냈다.

이어 "기존 가치투자 고집을 꺾는 것은 아니다"며 " '지독하다' 고 할 정도로 보수적인 가치투자 철학을 고수하는 것이 펀드투자자들에게는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 '가치투자 입문' 과도 같은 개념의 펀드를 내놓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10년투자펀드가 가치투자 전문가 펀드라면 이번 펀드는 '초보자' 들의 입문서와 같다는 설명이다.

밸런스펀드는 C클래스의 경우 연간 총보수 1.998%고, 장기투자를 권유하기 위해 매 1년마다 보수가 낮아져 3년이상 가입시 연 30% 정도 보수가 인하된다. 최소가입기간은 90일 이상이고 중도 환매시 수수료가 부과된다. 한국투자증권과 대우증권, 현대증권,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I'm YOU ETF적립식립

■ I'm YOU ETF적립식립 이란?

한국투자증권의 운용전문가가 고객님의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위임 받아 고객님의 투자목적에 맞춰 운용하는 투자서비스로 매월 적립된 일정 금액을 대표지수ETF와 섹터ETF에 분산 투자하는 서비스

■ 특 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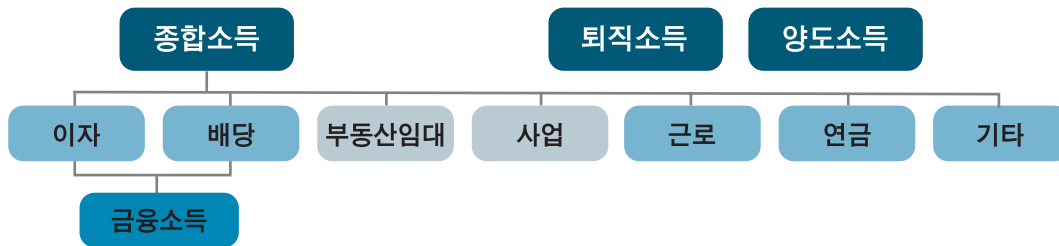
- ▶ 적립식 투자의 Dollar Cost Average 효과를 Upgrade한 투자전략
- ▶ 대표지수ETF와 저평가된 섹터ETF의 분산투자를 통해 지수 초과수익을 추구
- ▶ Core & Satellite 전략으로 지수 부담을 느끼는 고객에 대한 대안 상품 제시

■ 상품 세부내용

구분	내용
상품명	I'm YOU ETF적립식립
계약기간	1년(자동연장)
가입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20만원 이상 - 최초 가입시 현물입고 가능
추가입금/일부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입금: 건별 최소 20만원이상 자유적립 - 일부출금: 불가능
투자대상 유가증권	ETF 및 기타 현금성자산 등
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적립금으로 대표지수 ETF(50% 이상)와 섹터 ETF로 장기 분산투자 - Core(대표지수ETF)의 핵심전략과 Satellite(섹터ETF)의 주변전략을 통해 인덱스 초과 수익을 추구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임수수료: 연 1.8%(분기별 후취, NAV 기준) - 중도해지수수료, 선취수수료, 매매수수료, 성과수수료: 없음
해지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해지시: 보유자산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 - 만기해지시: 고객이 해지 요청한 경우, 현금 또는 현물로 상환하고,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 주식매도 요청시: 08:30 이전 매도 요청하면 당일매도, 08:30 이후 매도 요청이면 익영업일 이후 매도가능. 단, 별도 요청시 당일 매도 가능

종합소득세 및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구조



◆ 종합소득

- 개인별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 (단, 분류과세, 분리과세 소득 제외)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시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도 함께 납부

소득의 종류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신고·납부 기간	5.1 ~ 5.31

* 신고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일 경우 그 다음날

◆ 분류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별도로 과세

퇴직소득	근무기간 동안 형성된 소득의 일시 실현에 따라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 과세
양도소득	보유기간 중 형성된 자본 이득에 대한 중과세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위해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

◆ 분리과세

- 각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되나 무조건 또는 선택적 분리과세인 경우에는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이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음

소득종류	분리과세	합산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	- 금융소득 합계 연 4,000 만원 이하 -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이자 - 세금융대종합저축이자 등	개인별 4천만원 초과 시
사업소득(부동산임대)	- 해당 없음	무조건 종합소득 신고
근로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 한 경우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근로소득 + 종합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	- 각종 복권 및 경마 당첨금 - 연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연 300만원 초과 시
연금소득	- 연 6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연 600만원 초과 시

업종	기업명	기업코드	현재가 (3/29, 원)	목표가격 (원)	추천사유
건설	삼성물산	000830	80,400	110,000	건설과 상사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한 개발역량으로 양적/질적 성장 기대
	현대건설	000720	81,700	118,000	동사가 강점을 지닌 이라크, IOC, 인프라 투자 확대 예상
기계	태광	023160	29,150	38,000	2012년 사상 최대 매출 달성할 전망. Capa 증설 및 수익성 개선도 현재 진행형
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034220	27,150	36,000	패널 가격 안정화에 따른 1분기 적자폭 축소 및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
미디어·광고	에스엠	041510	46,100	70,000	일본 활동 증가로 해외 로열티 및 매니지먼트 수익 증가 전망
	제일기획	030000	17,950	24,000	중국 광고시장의 풍부한 성장 가능성, 삼성전자의 적극적 마케팅 활동 수혜주
반도체·반도체장비	삼성전자	005930	1,302,000	1,650,000	시장지배력 및 원가경쟁력에 대한 재평가 통해 점진적인 주가 상승 전망
보험	메리츠화재	000060	13,350	17,800	의료 사용량 증가세 둔화에 따른 장기 위험손해를 안정 수혜 예상
	삼성화재	000810	217,500	300,000	손해보험업계의 일반보험 공동인수제 폐지 및 RBC비율 산출 신뢰 수준 상향 조절로 수혜 예상
	현대해상	001450	33,700	43,000	이익 창출력이 4,000억원 내외로 성장
생활용품	아모레퍼시픽	090430	1,164,000	1,365,000	최근 주가 조정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매력 발생, 중국 사업 고성장 모멘텀 지속
	LG생활건강	051900	554,000	630,000	하반기 해대음료 턴어라운드 가속화와 페이스샵 중국 사업 확대
섬유·의류	베이직하우스	084870	19,050	28,500	중국 의류 시장 고성장과 순조로운 매장 확대에 향후 연평균 30% 수준의 외형 및 이익 성장
	LG패션	093050	40,700	60,000	투자 확대 이후 이익 개선 가시화, 소비재 업종 내 여전히 저평가
운송	한진해운	117930	16,500	25,000	운임이 상승에 따라 4월 실적도 크게 개선될 전망
	현대글로벌비스	086280	201,000	260,000	CKD와 완성차 해상운송의 사업량이 예정대로 늘어나면서 1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
유통	롯데쇼핑	023530	344,000	580,000	모든 소매유통 채널 보유로 경기 불안에도 안정적인 실적 예상
	CJ오쇼핑	035760	264,000	350,000	중국 홈쇼핑 사업 확대에 따른 이익증가를 예상
은행	BS금융지주	138930	13,900	19,000	신규 NPL, 실질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 양호. PF 대출에 대한 부실우려 줄어듦
음식료·담배	CJ제일제당	097950	352,500	385,000	바이오는 경쟁사 증설 지연으로 라인신가격 강보합세 유지
	KT&G	033780	77,500	92,000	경쟁사의 가격인상과 신제품 효과로 점유율 상승
인터넷·소프트웨어	엔씨소프트	036570	311,000	400,000	블레이드앤소울, 길드워2 등 탄탄한 신작 라인업과 글로벌 게임 개발 역량을 보유해 장기 성장 가능
자동차·자동차부품	기아차	000270	74,800	105,000	높은 경차 비중과 뛰어난 연비로 고유가의 수혜 전망
자원개발	LG상사	001120	52,600	90,000	LG상사의 GS리테일 지분 매각 자금은 석탄(연료탄)사업에 투자될 전망
전기부품·설비	LS산전	010120	66,500	125,000	전력망 투자 확대에 전선 시장은 제2차 호황기에 진입할 것
전력·가스	한국전력	015760	22,550	36,000	충전 이후와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 이전에 전기요금에 한차례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
제약·바이오	녹십자	006280	116,500	191,000	업종대비 뛰어난 성장성과 수익성, 혈액제제 포함 다수의 해외 캐털리스트 보유
	동아제약	000640	81,500	136,000	산업재편 수혜주. 약가인하 풍파를 견디어낼 자본력, 포트폴리오, 신약 파이프라인 갖춘
조선	대우조선해양	042660	33,000	47,000	강한 수주모멘텀 예상. 2012년 F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경쟁입찰 없이 독점 수주할 규모만 10조원 예상
증권	삼성증권	016360	59,000	70,000	금융투자상품 판매 수익 확대 및 성장 전략의 본격화
	키움증권	039490	71,900	75,000	업종 내 최고 ROE 및 2011년 중 국내 유통성의 증시 유입에 따른 추가 개선세로 multiple 상승 예상
지주회사·복합기업	두산	000150	150,000	230,000	모트룰과 전자사업부 모두 4분기에 실적 턴어라운드로 실적개선세 예상
철강·비철금속	현대제철	004020	99,900	144,000	현대제철에 유리한 강종별 시황이 전개되고 있음(형강)철근/열연/냉연/후판)
	POSCO	005490	382,000	520,000	원재료 가격 안정으로 실적은 2분기부터 반등할 것
통신서비스	SK텔레콤	017670	141,500	200,000	배당 메리트, 매력적인 valuation, 자회사의 기업가치 상승
호텔·레저	강원랜드	035250	25,500	37,800	6월 환경개선 완료로 영업장 확장되면 카지노 부문 실적 개선 기대
화학	OCI	010060	229,000	380,000	제품가격이 하향 안정되면서 공급능력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될 전망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펀드운용실적(12.03.30, Class A기준)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펀드성과	-1.43	10.83	16.65	-2.31	111.48
BM	-0.76	9.80	13.12	-4.18	47.68

(단위 : %, 설정일 : 2005.12.20, BM = KOSPI × 95%)

수익률추이(Class A기준)



주요 투자종목(2개월전 기준, 단위 : %)

순위	종목	비중(%)
1	삼성전자	14.62
2	신한지주	6.44
3	하나금융지주	5.24
4	에스에프에이	4.44
5	대림산업	4.04
합계		34.78

운용경과 및 운용계획

3월 증시는 유럽과 미국 등 대외변수의 양호한 흐름과 지수 부담감이 교차한 끝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지속적인 개선을 보이며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지속되었으나 부진한 중국 경기 지표 발표로 경착륙에 우려가 부각되며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네비게이터 펀드는 1~2월 양호한 성과를 보였던 종목들의 주가 부진으로 벤치마크 및 유형 평균보다 다소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금리 상승의 수혜가 기대되는 보험 업종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보다 양호한 수익률을 시현한 반면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된 기계, 철강 업종이 시장보다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비게이터 펀드는 지난달 주가가 부진했던 기계, 자동차, 화학 업종의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당사는 최근 유럽을 제외한 주요 경제권의 경기 선행지수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주식 시장이 수개월 동안 지속했던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유가도 국제간 공조를 통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경착륙 우려가 부각된 중국은 신규 수출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급준비율의 추가 인하 등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종별로는 경기 회복의 수혜가 예상되는 은행, 조선, 건설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장기 성장이 예상되는 OLED 관련 업종에 대하여 비중 확대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반면 중국 및 유럽 경기 둔화 우려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였던 인터넷, 게임, 생활용품 업종 등은 상대적으로 매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로 많이 하락한 업종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과 장기 성장성을 보유한 내수주 가운데 유망한 기업 발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 월스트리트투자은행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펀드운용실적(12.03.30, Class A기준)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펀드성과	6.72	22.50	22.99	-11.53	-59.67
BM	-	-	-	-	-

(단위 : %, 설정일 : 2007.06.19)

수익률추이(Class A기준)



주요 투자종목(2개월전 기준, 단위 : %)

순위	종목	비중(%)
1	BB&T CORP	8.21
2	WELLS FARGO & CO	8.12
3	US BANCORP COM	7.92
4	PNC FINANCIAL SERVICES GROUP	7.86
5	STIFEL FINANCIAL	5.98
합계		38.09

운용경과 및 운용계획

미국 S&P 500 금융업 지수는 3월 한달 동안 7.31% 상승했습니다. 주식 거래량 및 발행 물량이 증가하면서 자본시장관련주(유니버설 은행 +7.7%, 증권사 +7.0%, 자산운용사 +4.0%)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IB 업종이 부분적으로 호조를 나타내면서 1분기 실적 기대로 주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에 대한 연방은행의 2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발표되면서 배당금 확대 및 자사주 매입 규모가 예상을 상회한 은행들의 랠리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모기지 리파이낸싱 건수도 상승하면서 리테일 은행의 모기지부문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초 조정을 우려했던 것과 달리 3월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최근 주가 급등에 대한 숨고르기, 유럽 사태 추이 및 중동 갈등 고조로 인한 유가 불안전성 등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이를 대비하여 총 편입비를 소폭 낮추고, 중소형 증권주 비중을 낮추었습니다. 4월 13일 JP모건과 웰스파고로 시작되는 금융주 1분기 실적 발표를 전환점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 소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분기 금융주 상승 원인은 상대적 저평가 요소가 컸던 만큼, 가치 보다는 성장성이 돋보이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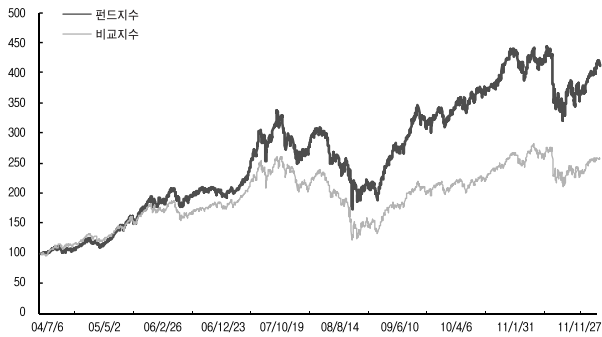
한국투자 삼성그룹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펀드운용실적(12.03.30, Class C기준)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펀드성과	1.17	12.43	17.67	-2.44	315.39
BM	-0.76	9.80	13.12	-4.18	157.26

(단위 : %, 설정일 : 2004.07.06, BM = KOSPI × 95%)

수익률추이(Class C기준)



주요 투자종목(2개월전 기준, 단위 : %)

순위	종목	비중(%)
1	삼성전자	12.82
2	삼성물산	7.07
3	삼성화재	7.00
4	삼성중공업	6.97
5	삼성SDI	6.78
합계		40.64

운용경과 및 운용계획

3월 주식시장은 미국 경기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그리스 국채교환 과정에서 변동성, 중국 전년대 관련 변동성 등을 수반하며 혼조세를 보여 월간 0.8%의 약보합세로 2천선을 지지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삼성그룹주 펀드는 1개월 기준으로 벤치마크 대비 및 상대순위 측면에서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며, 중장기 성과 역시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과도했던 우려감 완화에 따른 안도랠리 혹은 풍부한 유동성에 기초한 유동성 랠리가 2천선에 진입하면서 실적장세 성격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실적개선에 대한 전망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 삼성그룹의 주요 기업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경기 상황 및 그에 따른 기업실적 전망이 다소 유동적으로 보이는 상황이지만,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 주도력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매크로 환경과 관련하여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회복 강도는 다소 미진한 환경 속에서 박스권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의 경기지표의 추이를 볼 때 저속이나마 성장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과 중국의 정책적 역할은 경기의 추이에 맞춰 사용 가능한 옵션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현 지지대를 유지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시장 전체의 레벨-업 혹은 레벨-다운 보다는 1분기 어닝시즌을 전후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대부분 삼성그룹주의 경우 양호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위기 진행과정에서 우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착실히 경쟁업체와의 격차를 벌임으로써 주요 경쟁사 대비 양호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장기 기업가치가 제고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을 지속할 계획이며 업종 내 경쟁력, 신성장 동력, 실적대비 소외 여부 및 탄력리스크 가능성 등을 주요 변수로 검토하여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투자 베트남적립식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혼합)

펀드운용실적(12.03.30)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펀드성과	5.44	21.34	3.76	-1.46	-51.21
BM	-	-	-	-	-

(단위 : %, 설정일 : 2006.11.21)

수익률추이



주요 투자종목(2개월전 기준, 단위 : %)

순위	종목	비중(%)
1	VIETNAM DAIRY PRODUCTS	9.17
2	Financing and Promoting Technol	5.92
3	MASAN GROUP CORP	5.53
4	DHG PHARMACEUTICAL JSC	4.70
5	BAOVIET HOLDINGS	4.56
합계		29.88

운용경과 및 운용계획

2012년 3월말 기준 VN-index는 441.03로 2월말 지수 423.64 대비 4.1% 상승 했습니다. 1월과 2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주식시장은 3월에 들어 이익실현 움직임과 저가매수세가 혼조세를 보이며 지수 440 ~ 460 사이의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2년 1분기가 지난 현재 연 인플레이션율이 꾸준히 감소하여 3월 말 CPI YoY 14.2%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기대에 상당부분 부응하는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분기 물가 전망은 색 낙관적이지 않은 형편입니다. 우선 지난 3월에 약 10% 인상된 가솔린 가격이 4월달 물가상승에 직접 반영될 전망이고, 5월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중 전기세 역시 약 5% 정도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향후 물가 상승의 동력이 될 것 입니다. 하지만 당사 리서치 팀이 주목하는 부분은 물가지수 구성 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음식료/식자재 부분의 가파른 가격 하락 추세입니다. 작년 쌀, 돼지고기 등의 가격 급등으로 물가 상승의 주요인이 되었던 음식료/식자재 부분이 올해에는 크게 안정 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향후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어, 4월 물가지수의 비정상적인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환경 개선에 힘입어 올해 2분기~3분기 중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펀드멘탈의 개선 보다는 기대감에 대한 의존이 큰 점, 향후 물가안정 및 금리 하락 추세, 그리고 부동산 업황의 개선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 상승폭에 있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때마다 낙폭 과대 주식들을 중심으로 추가 매수할 계획이며 지수 480 이상에서는 고배타 주식군을 중심으로 이익 실현 및 주식편입비 축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 한국의 힘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펀드운용실적(12.03.30, Class A기준)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펀드성과	-1.92	12.72	19.05	-4.57	97.73
BM	-0.76	9.80	13.12	-4.18	49.82

(단위 : %, 설정일 : 2006.03.24, BM = KOSPI × 95%)

수익률추이(Class A기준)



주요 투자종목(2개월전 기준, 단위 : %)

순위	종목	비중(%)
1	삼성전자	13.16
2	하이닉스	4.10
3	CJ제일제당	4.01
4	SK이노베이션	3.72
5	현대중공업	3.49
합계		28.48

운용경과 및 운용계획

전월 코스는 2,000포인트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동안 달러를 견인해 온 유럽재정위기 완화라는 동력의 힘이 떨어지는 가운데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감이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동 펀드는 전월에 IT, 자동차 업종의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레벨업된 제품의 경쟁력으로 안정적 이익이 창출되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 및 일본 신차 경쟁에 대한 우려로 금년 상승 펄스에서 소외를 받아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상황이므로 막연한 우려보다는 경쟁력 제고 측면에 초점을 맞춰 편입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소재업종의 경우 중국 정부의 긴축 정책 완화가 기대했던 것 보다 속도가 늦춰지고 있으므로 일부 비중을 축소하였습니다.

4월 국내 주식시장은 상승 분위기는 지속되지만 그 폭은 미미한 박스권 장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초 안도달러는 유럽발 리스크의 감소와 미국 경기회복에 크게 기인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시장에 반영된 만큼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중국 경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확한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우나 시장이 반응을 보일 만큼 적극적인 정책을 실행할 시점은 경기둔화가 조금 더 진행되어 지표의 부진이 가시화 될 2분기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당분간은 모멘텀이 부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에 영향을 줄 변수는 "유가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경우 경기지표 악화, 기업의 원가 부담으로 지수 조정 폭은 더 깊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IT, 건설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유지할 것이며, 조정 국면 시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중국 경기에 민감한 소재 업종은 매수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으나, 부진한 경기 지표 발표 이후가 적절한 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월에도 1등 기업 중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으나, 전방시장이 양호하고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는 2등기업 및 중소형주의 소외가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기업들에 투자를 더욱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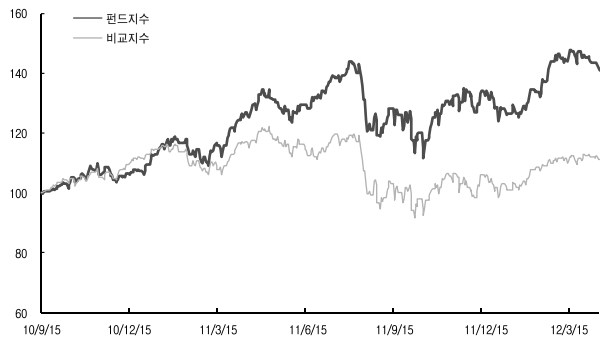
동부파워초이스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펀드운용실적(12.03.30, Class A기준)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펀드성과	-4.53	11.08	16.95	13.20	39.71
BM	-0.74	9.83	13.23	-3.88	10.83

(단위 : %, 설정일 : 2010.09.15, BM = KOSPI × 95% + Call × 5%)

수익률추이(Class A기준)



주요 투자종목(2개월전 기준, 단위 : %)

순위	종목	비중(%)
1	삼성전자	8.65
2	하이닉스	8.49
3	LG화학	8.14
4	두산중공업	7.37
5	대우조선해양	7.32
합계		39.97

운용경과 및 운용계획

2012년 3월 주식 시장은 2,000P를 전후한 등락이 이어졌습니다. 장중 2,057P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삼성전자를 제외한 기타 대형주들의 부진, 주식형 펀드 환매 물량 출회 지속, 기대보다 느린 중국발 경기 부양 등으로 상승 모멘텀이 약화되었습니다. 동펀드의 1개월 수익률은 BM대비 3.8% 회회하였습니다. 전월 높은 수익률을 보인 조선, 기계, 건설 등 에서 일정 부분 이익을 실현 하였으나, 단기의 추가하락 폭이 심해 전월의 상승분이 많이 희석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세에 따른 차별화 시장이 펼쳐진 것도 수익률 부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조선, 기계, 증권, 보험, 건설, 통신/미디어, 자동차, 운수창고 Overweight 상태이고, 금속, 은행, 유통, 음식료, SW, 에너지, 의료, 유틸리티 업종 등을 저수준에 낮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 주식시장은 박스권 장세가 전망됩니다. 미국의 경기 호전 기대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 경기 회복 기대는 상당 부분 반영되었고 최근 스페인 구제 금융 요청설 등으로 유럽 위기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경제의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점도 주식시장 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블키가 QE3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높이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유가 안정 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고려시 미국 경기는 지속적으로 호전될 전망입니다. 불확실한 매크로 상황하에서 주식시장은 추세적인 움직임 대신 박스권 움직임을 예상되는 가운데 종목 및 업종별 차별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KOSPI는 1,950P~2,100P 수준이 예상됩니다. 미국의 경제 회복기대에 따라 IT, 자동차 업종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낙폭 심한 화학, 금속, 조선 업종의 저점 매수에도 주력 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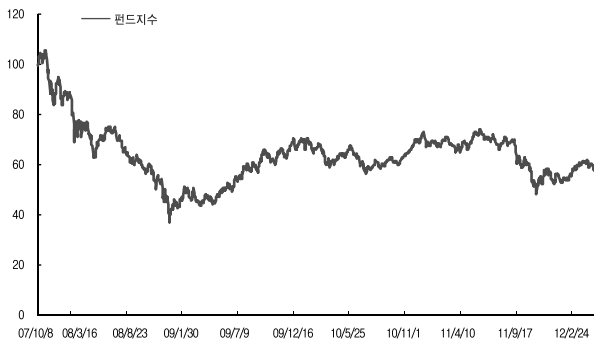
한국투자 그레이터차이나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펀드운용실적(12.03.30, Class A기준)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펀드성과	-7.02	8.03	11.56	-18.75	-44.44
BM	-	-	-	-	-

(단위 : %, 설정일 : 2007.10.08)

수익률추이(Class A기준)



주요 투자종목(2개월전 기준, 단위 : %)

순위	종목	비중(%)
1	IND & COMM BK OF CHINA-H	7.82
2	CHINA CONSTRUCTION BANK-H	7.66
3	CHINA MOBILE LTD	5.69
4	CNOOC LTD ORD HKD0.0	5.22
5	PETROCHINA CO LTD HK	4.69
합계		31.08

운용경과 및 운용계획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월간단위 상승세를 보였던 MSCI China 지수는 3월에는 6.8% 하락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FY11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상당수 기업들이 4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보였으며 상장기업의 20% 정도만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의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비록 춘절에 따른 왜곡이 있었다고는 할지라도, 중국의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실적 발표가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향후 시장의 관심은 다시금 기업 펀더멘탈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펀드는 부동산, 내구소비재, 에너지, 산업재 업종에 대한 투자비중을 지수 대비 높게 유지하고 있으며, 통신과 금융 업종은 지수보다 낮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4월에는 실수요자들의 수요 증가 및 우호적인 모기지 조건에 힘입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업종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비재 업종과 관련하여서는, 중국 정부가 내수확대를 위하여 4월을 소비촉진의 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소비촉진 정책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쇼핑몰 등의 경쟁 과다, 프로모션 및 운영비용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단기내에 소매업체들의 실적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구 소비재 업종에서는 높은 수익 증가가 기대되는 카지노 업종에 대한 비중확대를 유지할 계획이며, 필수소비재 업종은 원자재 비용 부담이 축소되면서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투자비중을 현 수준보다 확대할 것을 계획중입니다. 에너지 업종에서는 가스 업종을, 산업재 업종에서는 춘절 연휴 이후 건설 프로젝트 진행이 가속화되는 것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선도 건설업체와 원자력발전 수주 증가의 수혜가 기대되는 발전장비 업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쟁 심화 및 통신망 구축을 위한 자본지출 증가를 고려하여 통신 업종은 비중축소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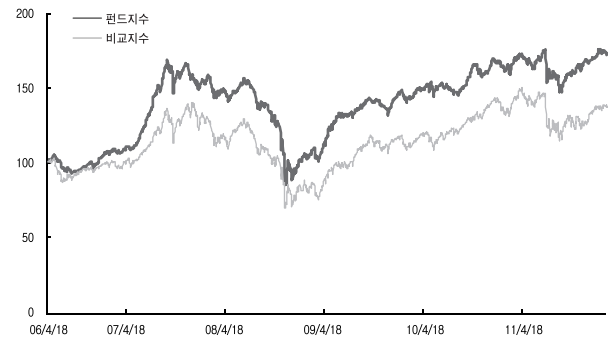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펀드운용실적(12.03.30)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펀드성과	-1.55	3.58	15.2	2.91	81.87
BM	-0.8	10.31	13.81	-4.4	41.57

(단위 : %, 설정일 : 2006.04.18, BM = KOSPI × 100%)

수익률추이



주요 투자종목(2개월전 기준, 단위 : %)

순위	종목	비중(%)
1	한국전력	4.56
2	KT	4.00
3	남양유업	2.43
4	동아타이어	2.25
5	에스에프에이	2.18
합계		15.42

운용경과 및 운용계획

3월 KOSPI는 2030.25p로 시작하여 3월말 종가 2,014.04p로 -0.80% 소폭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연초 이후 지속되었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주춤하는 가운데 기관자금 또한 순매도로 행진이 지속되며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 전자나 현대차 등 일부 대형주만의 상승이 나타나는 차별화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대기기업의 이익모멘텀이 점차적으로 소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현상은 계속되어 중소형주의 비중이 높은 동 펀드는 상대적으로 소폭 부진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서비스, 음식료, 전기가스업과 같은 경기방어업종의 상대적 소외가 펀드 성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고용개선추이를 볼 때 QE3 시행을 단언하기 어렵고, 올해 6월말까지 유럽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시장상황은 유동성 장세의 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가 지금 수준에 머무를 경우 경제에는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의 PMI 지수 또한 부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유동성장세나 금융장세 이후에는 실적이 동반되지 않고 상승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실적장세가 전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동 펀드는 현재 포트폴리오 내에서 실적 대비 저평가 정도가 심화된 종목 비중을 확대하는 작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단 계	점 검 항 목	주 요 항 목	평가기준
투 자 자 투 자 정 보 확 인 적 정 성	고객 성향 파악	확 인 서 작 성	투자정보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는가
		작성 취지 안내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인하여 작성해야 된다고만 얘기하면 미흡, '고객님 성향 파악을 하고 이에 가장 적합한 상품 추천을 위해, 고객님의 보호를 위해' 등의 멘트가 추가로 이어져야 함
		성 향 안 내	투자성향 진단 결과 확인서를 교부하고 진단결과에 대해 설명하는지 여부 점검 등급만 얘기하면 안되고, 해당 등급의 특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함
		적 합 한 편 드 선 정	고객 성향에 근거한 투자권유 가능 상품군 및 해당 상품군 중 적절한 특정 상품을 안내하고 추천 근거(펀드의 특징이나 시장 전망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지 여부 (예시) 고객님의 진단결과 성향은 중위험등급인데 위험중립형 고객의 경우 어느 정도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손실 위험도 따른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나 위험을 감내하는 수준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성향에 적합한 상품으로는 주식이 아주 일부만 편입되는 혼합형 상품이나 원금이 부분적으로 보장되는 ELS, 그리고 투자적격등급 범위 내 채권 정도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000상품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상품은 운용 스킴 상 주식이 ~수준 으로만 편입되기 때문에 시중 금리 이상의 수익 추구가 가능하면서도 주가 하락시 손실 위험이 주식이 많이 편입되는 주식형 펀드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후 주가는 ~사유로 인해 지금보다는 한단계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더 우세한데요, 이 상품은 주식이 일부 편입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따른 추가 수익은 어느 정도 기대하면서 일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큰 손실은 피하고 싶으신 분들께 잘 맞으실것 같습니다.
		비 적 합 안 내	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 등급 가입 문익시 부적합 사실 및 동 상품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 선택확인서를 안내하는지 여부 ※ 해당 상품의 위험성 설명 없이 확인서 작성만 안내할 경우 미흡으로 평가
설 명 의 무	(해 외 / 국 내 펀 드 공 통) 투 자 설 명 서 주요 내용 설명	투 자 설 명 서 교	상담 시 고객에게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핵심설명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공모파생결합증권(ELS, DLS)은 투자설명서(CD)+핵심설명서 2종 교부) ※ 상담 전에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고 상담 후에 제공하는 것은 미교부로 평가 ※ 설명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기만 하고 상담 시 활용하지 않아도 미흡으로 평가 ※ 상담만 받고 갈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해도 되나, 가입까지 할 경우 정식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 함
		명 칭 및 종 류	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는지 여부 (종류, 호수까지 정확하게 언급) ※ 우수사례 : 한국밸류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 1호 주식형 ※ 미흡사례 : 네비게이터주식, 신한봉쥬르차이나, 마이스터1호 등
		투 자 목 적 등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운용목표),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 전략에 대한 설명 ※ 자료로만 제시하고 설명하지 않는건 미인정
		투 자 위 험 설 명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고 분명하게 진행해야 함 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 ② 투자자 판단과 책임 원칙 안내 (예시) 고객님의, 동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보장이 되지 않아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는 고객님의 직접 판단하시고 고객님의 책임으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 위험에 대해 충분히 감수를 하시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③ 손실 가능 금액이 정해진 상품(ELS 등)의 경우 그 내용 안내

단	계	점 검 항 목	주 요 항 목	평가기준
설	명	의	무	<p>① 투자상품의 판매방법 설명(내정,전화,온라인) ② 환매기준일 및 환매대금 지급일</p> <p>③ 환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에 대한 설명 여부</p> <p>④ 조기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대부분 ELS)</p> <p>⑤ 폐쇄형 펀드의 경우 환매 제한에 관련된 사항</p>
				<p>고객 또는 간접투자기구가 부담하는 ① 수수료와 ② 총보수(운용,판매,기타) 설명 여부</p> <p>선취판매수수료가 없는 상품의 경우에도 동 사항을 언급해주어야 함</p> <p>(예시) 고객님의, 동 상품은 선취판매수수료는 별도로 없고~</p>
				<p>펀드이동제의 주요내용(의의, 절차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p> <p>(예시) “요즘 펀드이동제를 시행한다고 하던데, 이 펀드(상당받고 있는)도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 올해 1월 25일부터 환매수수료나 선취수수료 등의 부담 없이 동일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회사로 이동할 수 있는 ‘펀드이동제도’가 생겼습니다. 거래중인 판매사에서 ‘계좌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옮기고자 하는 판매사를 방문해 이동신청을 하시면 되고, 펀드이동 후 3개월간은 이동이 제한됩니다.</p> <p>현재 이동가능펀드는 모든 펀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세제혜택펀드, 해외펀드, 사모펀드 등은 이동에서 제외됩니다. 세제혜택펀드, 역내해외펀드등은 세금환급/대외자산 구비후 향후에 이동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매사를 변경하실때에는 펀드 전액만 이동가능하며 일부 금액만 분산해서 이동할수는 없습니다.</p>
				<p>상담 종료 후 고객의 가입의사를 반드시 확인할 것</p> <p>가입을 안하겠다고 하면 즉시 권유를 중단해야 함</p> <p>(예시) 고객님의, 이 상품에 가입을 하시겠습니까?, 이 상품 가입을 희망하십니까?</p>
				<p>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 내용 설명 확인서</p> <p>상담 후 실제 가입절차 진행 시 신규신청서 작성 전에 바로 고객이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는지 동 양식을 이용하여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함</p>
				<p>사 후 관 리 서 비 스 안 내</p> <p>사후관리 서비스(전화문의 응대/자산운용보고서 발송/시황 또는 펀드 관련 각종 유용한 정보 메일 발송 서비스 등) 안내</p>
				<p>약관 및 정관 변경 공시</p> <p>약관 또는 정관의 주요 내용 변경 시 공시에 관한 사항 설명 여부</p> <p>(예시) 본 투자신탁의 약관 또는 정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거나 고객님의게 통지하여 드립니다</p>
				<p>환 헛 지 관 련</p> <p>① 환율 변동 위험 ② 해당 펀드의 환위험 헛지 여부 ③ 목표 환헛지 비율 설명</p> <p>④ 고객이 직접 환헛지 하는 경우 모든 환율 위험이 제거되지 않으며</p> <p>⑤ 경우에 따라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 설명</p>
				<p>투자 국가 및 투자 비율</p> <p>투자대상 국가(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에 대한 설명</p>
				<p>투자 지역 경제 상황 설명</p> <p>투자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증시상황의 특징에 대해 관련 자료 등을 인용(인용)하여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하는지 여부</p> <p>※ 우수 사례 :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p> <p>※ 보통 사례 : ‘블룸버그’에 따르면~ 등 (구두상으로 인용)</p>
환	경	평	가	<p>판 매 인 력</p> <p>판매인력 적정성</p> <p>펀드판매자격이 있는 직원에 의해 펀드 판매가 되고 있는가</p>
				<p>판 매 창 구</p> <p>적 정 자 료 사 용 여 부</p> <p>펀드의 과거 수익률, 전망 등에 대해 상담 직원이 제시한 자료가 ① 사실에 근거한 자료이고 ② 출처가 제시된 자료인지 여부</p>
				<p>자 료 사 용</p> <p>광고 및 홍보물 관리</p> <p>미심의 광고물 및 유효기간 경과한 광고물이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p>

금융환경이 변하면 투자도 변해야 한다 2012년은 ELS도 월지급식으로!!



한국투자증권 월지급식 ELS

조건충족 시 매월 수익을 챙겨주는 월지급식 ELS가 2012년 재테크의 효자입니다

☑ 조건충족 시 월 단위 수익지급 가능!

은퇴생활자 등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필요로 하는 고객님의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 하락장에서도 웃을 수 있는 ELS의 장점은 그대로!

주가가 일정수준 하락하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하는 스텝다운형 구조로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절세 효과!

월단위로 수익이 지급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월 단위 수익지급 시 원금손실 상쇄 효과!

조건충족 시 매월 수익이 지급되므로 만기 손실상환시에도 어느 정도 상쇄 가능합니다.

월지급식 ELS란?

기존의 스텝다운 조기상환 ELS 상품 구조에 수익 지급주기를 매월 단위로 설정한 상품으로 목돈을 월지급식 ELS 상품에 투자하면 조건충족 시 매달 특정일에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어 ELS의 수익성과 정기적인 환금성 매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상품입니다.

고객센터 1544-5000/1588-0012

www.truefriend.com

※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원금손실 때로는 원금전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유동성이 매우 제한됩니다.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환매시, 본 증권의 공정가액에서(청산에 필요한 비용 등의) 중도환매수수료(공정평가액의 10% 이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원금의 상당액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은 복합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므로, 투자하시기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나 핵심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 ※ 당사는 ELS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하시기 전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투자설명서를 따릅니다.